

기억 너은 디글 리을

도형주

지하 1층, 배관들은 모여 활자가 된다
배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문장이다
출근을 서두르는 오전은 흘림체가 되고
적절한 한밤은 말줄임표로 졸졸거린다

누군가의 일상을 탁본하는 배관도
오늘처럼 가끔 목이 멘다
감당 못할 소란이 개수구에 쏟아질 때
시린 적막이 마침내 빙점이 되어갈 때
배관과 배관 사이 미처 이어지지 못한 말들
이럴 때 배관은 전하지 못한 유서처럼 멍멍하다

바뀌야 할 것은 형식이다
배관과 배관 사이, 이음새를 바꿔주면
마찰음만 내던 마디도 부드러운 음운을 내보낸다
배관을 점자처럼 두드리면
다시 흘러 내려오는 상류의 소식들

있기 위해 잇고, 잇기 위해 있다
배관의 오랜 침묵이 끝내 사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을 잇게 하기 위하여
대답 없는 너에게 내가 있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배관은 너를 향해 구부러지고 있다